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8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석이의 손을 살며시 쥔 채 전문지도사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빨리 낫게 스님이 기도할게”

진우 스님, 난치병 어린이 찾아 쾌유 발원

12월 11일 강북장애인복지관서
환아들 위로 · 요리교실 체험해
1시간가량 머물며 임직원 격려
“복지관 종사자 역할에 감격해”
치료비 2억5000만원 지원키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야, 잘 찌르네? 너 찌르기 선수구나 선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주먹밥을 만들며 요리교실을 함께하던 보현(7)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처음 보는 스님이 건넨 낯선 칭찬이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던 모양이다. 작고 동그랗게 만든 주먹밥에 고작 포크 하나 꽂는 일이 무슨 대수일까 싶지만 심장판막증을 겪으며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던 보현이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 너 먼저 하나 먹고 이제 스님한테도 하나 먹여줘봐.”

“응.”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현이지만 스님의 부탁에는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움직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 진우 스님의 입에 넣어주는 보현이. 힘이 없어 첫 번째 주먹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재도전 끝에 성공하며 스님과 보현이의 함박웃음이 터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시간가량 환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비행을 펼쳤다. 올해 진행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행사 이후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은 자리다. 복지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복지관 장애인불자회인 ‘바라밀’ 회원들이 스님을 반겼다. 스님이 펴낸 〈제발, 걱정하지 마라〉에 사인을 부탁한 김인애 씨와 직접 만든 마카롱을 선물로 준비한 바라밀 회원들이다.

짧은 환영식에 이어 진우 스님이 들른 곳은 복지관 본관에 마련된 운동발달실.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석(7)이가 치료를 받는 곳이다. 윤석이의 어머니는 2007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안희선 씨. 지난 4월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환아 치료비 마련 행사에서 발원문을 낭독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윤석이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몸에 연결한 관으로 대부분의 영양분을 섭취한다. 윤석이의 몸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전문지도사의 치료를 가만히 지켜보던 진우 스님이 윤석이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말했다.

“스님이 왔다 가니까 빨리 나을 수 있을 거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관세음보살님의 이적이 이뤄지기를 기도할게.”

윤석이 치료과정을 지켜본 진우 스님은 자리를 옮겨 자립생활지원실에서 보현이와 요리교실을 함께했다. 보현이는 생후 한 달째부터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수안사에서 지내고 있다. 친모가 아이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 수안사 묘담 스님이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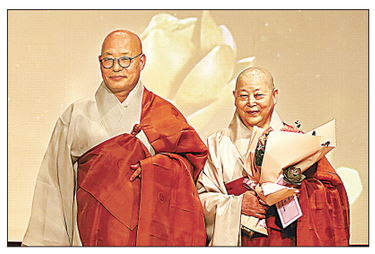
절에서 자란 보현이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처음 만난 진우 스님이 조금은 낯선지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도 장난기 섞인 스님의 말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스님도 손주벌 되는 보현이가 귀여운 듯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요리교실 이후에는 회의실에서 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모연행사로 모금한 기금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복지관 임직원 여러분이 대신하고 있어 감격스럽다”며 “성불과 자비의 종교인 불교에서 자비가 없이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종단도 보다 더 어려운 복지 분야에 신경 써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전달식에 참석한 환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선물을 나눠줬다. 거동이 가능한 보현이에게는 킥보드,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윤석이에게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주어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인 김민성 군과 문혜린 양에게 각각 선물을 전달했다.

계호 스님 “부처님 가르침 전하겠습니다”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종정상 수상… 포교기금 전달
진우 스님 “자승 대종사 유지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어가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사진 오른쪽)이 포교대상 종정상을 수상하고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5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교대상 대상으로 선정된 계호 스님은 수행과 문화로 전법하는 진관사 회주로 산사음악회, 산사음식시연회, 국행수륙재 등 문화행사와 기도, 수행, 명상,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활동에 진력해왔다.

계호 스님은 “원력과 공심으로 정진하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받는 상”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 잘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호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해 포교대상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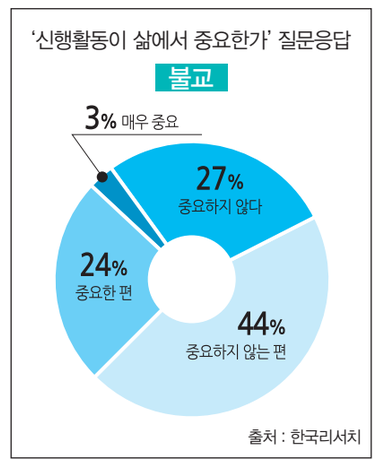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은 민주평화통일 대통령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중신회 ·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이 수상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해동 스님, 동련광주지부회장 지장 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은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을 받았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누구보다 전법을 강조하고 전법의 바람을 일으킨 자승 대종사의 유훈으로 결집된 원력이 바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이야말로 물질만능 풍조로 인해 쇠락해가는 정신문화 회복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 천년의 불교중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9대 포교원도 전법을 통한 간절한 포교만이 살길임을 절실히 여겨 ‘GO!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호감도 높은 불교, 신행 · 결속력은 ‘낙제점’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불교, 종교 호감도 1위 차지
불자 27%만 “불교, 삶에 중요”
“핵심 신도 양성 방안 찾아야”



한국 주요 5대 종교 중 불교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종교생활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교신자는 27%로, 정체성과 내부 결속력은 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6일과 12월 13일 ‘2023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 100점 만점 중 52.5점으로 한국 주요 종교 중 가장 높았다. 가톨릭은 51.3점이었고 개신교는 33.3점, 원불교는 29.4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불교에 대해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가졌고, 매우 높은 호감도를 가진 사람은 23%가량이다.

대외적인 호감도가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교지만, 신행활동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먼저, 한국리서치가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가톨릭이 11%였다. ‘종교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달한다.

종교활동 참여율은 불교가 제일 낮았다. 불자 중 2%만이 매주 법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2~3번 참여한다는 불자는 6%, 한 달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불자는 19%였다. 한 달에 한 번도 법회에 가지 않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자는 71%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 중 54%는 매주 교회에 가고, 가톨릭 신자 중 27%는 매주 미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종교활동 참여율로 신앙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없지만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불자들의 비율이 타종교에 비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실제 개신교인 중 70%가 자신의 신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던 반면, “불교 신행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자는 27%에 머물렀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불자는 44%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불자도 27%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심 신도 양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적 불교’를 향유하고 있는 대중을 어떻게 ‘종교적 불교’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7%가 나온 것은 법회와 신도교육이 그나마 지속되며 올라온 것”이라면서도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응집할 결속력이 없는 상태다. 이제는 세대전승과 시대에 맞는 신도교육, 봉사 등을 통해 핵심 신도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다음 호는 2024년 신년특집호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